

증례Ⅲ - 6

Konus Telescope Denture를 이용한 상악 부분 무치악 치료증례

강인호, 김창희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보철학교실)

국소의치는 전혀 성질이 다른 잔존치와 치조제 점막을 기반으로 설계되어 장착되는 것이다.

잔존치조제와 치조제점막의 기능력 부담에 대한 반응의 차이점은 유해한 하중 배분을 초래하게 되며, 장착 후의 대책으로 가장 어려운 문제로 대두되는 지대치의 동요를 야기하게 된다. 그래서 지대치와 치조제 점막의 움직임의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Flexible support의 개념이 있으나 반드시 양호한 예후를 나타내지는 않는다. 그리하여 잔존치와 치조제점막의 움직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지대치와 의치상의 연결에 반드시 가동성을 부여하지 않아도 되는 Rigid support의 개념이 사용되어지고 있다.

Rehm(1962) 등은 이 개념의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였고 Körber(1973) 등은 결손형의 형태, 치조제의 모양, 지대치 등 적용 가능한 임상적 상황을 서술하였다.

Rigid support의 개념을 이용시 지대치는 간접 고정 효과를 얻을 수 있어서 지대치의 부담능력 증가를 가져오고 지대치근의 일체화를 가져올 수 있어서 변위의 주 방향을 수직방향으로 제한해줄 수 있다. 또한 치근막의 생리적 조절기전을 유효하게 활용할 수 있고, 지대치와 의치상의 견고한 연결에 의한 치조제 흡수를 줄여줄 수 있다.

본 증례에서는 심하게 진행된 치주질환으로 인하여 상악 다수의 치아를 발거해야 했다. 그러나 지대치의 수와 분포가 양호하였으므로 주연결장치의 외형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

이러한 Konus telescope denture의 사용으로 양호한 임상결과를 얻을 수 있어서 치료증례를 보고한다.